



# INTRO

## 모든 글에는 문장간의 유기성이 있다.

영어영역에서 전해지는 고전적인 속담(?)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한 문단내에서는 하나의 주제만을 이야기 한다.’ ‘영어 영역 지문내에는 통일성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의 단락에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며, 문장간에는 모두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지문 내에는 ‘유기성’이 있는 것이죠.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얼마나 그렇게 읽고 있나요? 학생들은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 글을 읽는데 능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고, 우리는 그것이 가시적인 것이든 (가령 대명사, 대동사와 같은), 아니면 논리적인 것이든 적극적으로 이으며 독해 해야합니다. 즉 앞문장의 내용을 끊임 없이 되뇌이며, 뒷 문장을 이해해가야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어영역 지문을 독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변형

In 2001, researchers at Wayne State University asked a group of college volunteers to exercise for twenty minutes at a self-selected pace on each of three machines: a treadmill, a stationary bike, and a stair climber. Measurements of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and perceived effort were taken throughout all three workouts. The researchers expected to find that the subjects unconsciously targeted the same relative physiological intensity in each activity. Perhaps they would (A) [automatically / intentionally] exercise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 regardless of which machine they were using. Or maybe they would instinctively settle into rhythm at 70 percent of their maximum rate of oxygen consumption in all three workouts. But that's not what happened. There was, in fact, no consistency in measurements of heart rate and oxygen consumption across the three disciplines. Instead, the subjects were found to have chosen the same level of perceived effort on the treadmill, the bike, and the stair climber.

\* treadmill: 러닝머신

\*\* physiological: 생리학적인



위의 문제를 풀고, (A) Part 정답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아래의 어구는 지문에 있는 표현 중 어떤 표현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 / at 70 percent of their maximum rate of oxygen consumption

## SOLUTION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유기성’이 있습니다. 그 유기성이라는 것은 다 같은 말이라는 ‘일률적 적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 관계 (역접,대조,예시,상술,부연 등..)를 내포하면서도 이해의 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의 유사성을 계속 이어가면서 독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문 (출제 됐던 유형은 어휘문제였습니다)의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결국 지문에 반복되지만, 계속해서 길표면만 달라지는 표현들을 얼마나 이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에서도 (A)파트의 어휘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결국 밑에 Question에서 물었듯이,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 / at 70 percent of their maximum rate of oxygen consumption**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 Comprehension

In 2001, researchers at Wayne State University asked a group of college volunteers to exercise for twenty minutes at a self-selected pace on each of three machines: a treadmill, a stationary bike, and a stair climber.

- 20분동안 참가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속도에 맞추어 세 가지 운동기계에서 운동을 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Measurements of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and perceived effort were taken throughout all three workouts.

- 그럼 운동을 하면서 뭘 측정했느냐? ‘심박수, 산소 소모량, 인지된 운동 강도’ 세가지 운동 내내 측정됐다고 합니다.

The researchers expected to find that the subjects unconsciously targeted the same relative physiological intensity in each activity.

- 연구진들이 실험을 통해서 기대했던 가설은, 피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상대적으로 같은 생리학적 강도’를 각각의 활동에서 겨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리학적 강도 (physiological intensity)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당연히 지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perceived effort는 결국 ‘생리학적’ 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physiological intensity =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perceived effort**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리학적 강도가 다 어떨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상대적으로 같은’ 수준의 생리학적 강도를 피험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겨냥 할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Perhaps they would (A) [automatically / intentionally] exercise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 regardless of which machine they were using.

- (그들=피험자) 들은 아마도 그들의 최대의 심박수 기준 65퍼센트 수준으로 운동할 것인데, 이게 ‘자동적’(automatically) 이냐, ‘의도적’ (intentionally)냐를 골라야합니다. 일단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the same relative physiological intensity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리학적 강도를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무의식적으로’ 겨냥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즉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는 결국 생리학적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의도 역시 ‘무의식적’일 것입니다. 그럼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라는 말의 automatically가 될 것입니다.

## PARTA

## 빈칸추론

## 빈칸추론 풀이법(3) G-S구조

글의 구조는 읽을 텍스트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영어영역에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해칠 수 있는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글의 구조라는 것은 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어떤 ‘아매’ 스킬로 변질해버려서 학생들이 잘못 받아들이는 형태로 바뀌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G-S구조는 영어 글을 써내려가는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서술 방식이고, 사실 대부분의 수능영어가 이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G-S구조 에 대한 학습은 Intro 파트에서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INTRO 03. 구체적인 문장은 일반적 문장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빈칸추론을 풀이하는데 활용해보도록 합시다. 아래 문제를 풀고 정확히 그 구조를 잡아보는 것이 이 부분의 목표입니다.**

## | 2014학년도 수능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hen confronted by a seemingly simple pointing task, where their desires are put in conflict with outcomes, chimpanzees find it impossible to exhibit subtle self-serving cognitive strategies in the immediate presence of a desired reward. However, such tasks are mastered \_\_\_\_\_. In one study, chimps were confronted by a simple choice; two plates holding tasty food items were presented, each with a different number of treats. If the chimp pointed to the plate having more treats, it would immediately be given to a fellow chimp in an adjacent cage, and the frustrated subject would receive the smaller amount. After hundreds and hundreds of trials, these chimps could not learn to withhold pointing to the larger reward. However, these same chimps had already been taught the symbolic concept of simple numbers. When those numbers were placed on the plates as a substitute for the actual rewards, the chimps promptly learned to point to the smaller numbers first, thereby obtaining the larger rewards for themselves.

- ① as immediate rewards replace delayed ones
- ② when an alternative symbol system is employed
- ③ if their desires for the larger rewards are satisfied
- ④ if the value of the number is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the reward

\* perennial: 다년생의

\*\* ephemeral: 단명하는



## SOLUTION

저는 원래 글을 ‘구조적’으로 읽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특히 강사들이 만들어 낸 Problem-Solution 구조, Myth 구조 등 과거 구닥다리 수능에나 먹힐 법한 ‘스킬’들은 더욱 혐오합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G-S구조 만큼은 제대로 알아둔다면 매우 독해할 때 편리하고, 빈칸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에 대한 이해 입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지문의 초반부가 추상적이기도하고 (self-serving cognitive strategies? 뭘소리지 하셨을 것입니다) 지문과 뒤에 나오는 구체적 예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Catch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래의 문제를 General-Specific 구조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f) 이 문제는 정답률이 많이 낮았는데요, 빈칸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도 있겠지만, 사실 엄청난 낚시 선지가 있어서 정답률이 엄청 폭망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G-S구조를 잘 학습하기 위해 이 지문을 보고 있으므로 그 선택지는 **뻘** 상태로 4지선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낚시 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Comprehension

When confronted by a seemingly simple pointing task, where their desires are put in conflict with outcomes, (=A)

- **General 하게 서술 된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결 시키도록 할게요. 이 문장의 내용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A의 내용은 걸보기엔 단순해보이는 가리키는 일, 근데 그일이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대로 잘 안되는 무언가가 있나봅니다. 일단 A라고 쓰겠습니다.

chimpanzees find it impossible to exhibit subtle self-serving cognitive strategies in the immediate presence of a desired reward. (=B)

- 침팬지는 즉각적인 욕망되는 보상의 존재속에서 미묘하게 자기 잇속을 차리는 인지전략들을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뭘소리여?’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B)라고 지정하겠습니다.

However, such tasks are mastered \_\_\_\_\_ . (=C)

-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어진다고 얘기하며 빈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빈칸엔 뭐가 들어가야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C라고 지정하겠습니다.

In one study, chimps were confronted by a simple choice; two plates holding tasty food items were presented, each with a different number of treats.

-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이 느껴지시나요? 앞전까지는 일반적인 단어들과 내용들로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는 ‘침팬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험 내용’이 등장하면서, ‘아, 이제 구체적인 (Specific, Concrete) 이야기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일반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일단 글은 실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침팬지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 두접시를 받았고, 그 접시는 보상의 종류가 다르게 존재하고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험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는 어렵지 않은 듯 합니다.

If the chimp **pointed to** the plate having more treats, it would immediately be given to a fellow chimp in an adjacent cage, and the frustrated subject would receive the smaller amount.

- **pointed to?** 라고 하시면 별떡 생각이 드셨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었던 A,B,C의 상황중에서 ‘가리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었던 부분은 A였습니다. A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침팬지가 가리키는 일을 놓여진다고 했는데, 그 일이 자신의 욕구와 결과가 충돌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었죠? 이 문장을 나눠서 이해해봅시다.

If the chimp **pointed to** the plate having more treats, - 가리키는 일을 의미, A의 문장에서는 When confronted by a seemingly simple pointing task, 에 해당합니다.

it would immediately be given to a fellow chimp in an adjacent cage, and the frustrated subject would receive the smaller amount.

- 그렇다면,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바로 침팬지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이 문장인 것입니다. 즉 A파트에서는 where their desires are put in conflict with outcomes,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G-S구조가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시나요?

After hundreds and hundreds of trials, these chimps could not learn to withhold pointing to the larger reward.

- 그럼 눈치빠른 분들은 벌써 이 문장을 B에 연결하고 계실 것입니다. 수백번의 시도를 해봐도, 이 침팬지들은 더 큰 보상을 가리키는 것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걸 ‘자신의 잇속을 차리는’ 인지 전략이 불가능해졌음을 깨닫는 부분, 즉 B part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지요! => chimpanzees find it impossible to exhibit subtle self-serving cognitive strategies in the immediate presence of a desired reward. (=B)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However, these same chimps had already been taught the symbolic concept of simple numbers. When those numbers were placed on the plates as a substitute for the actual rewards, the chimps promptly learned to point to the smaller numbers first, thereby obtaining the larger rewards for themselves.

- 역접마저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부분은 그럼 뭐에 대한 부분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빈칸이 포함된 C part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앞전에 글에서 못봤던 부분을 C Part 속 빈칸에 집어넣으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보는 내용은 바로 symbolic concept (상징적 개념)을 침팬지들이 배웠고, 침팬지들이 그것을 ‘직접적 보상에 대한 대안물’로 교체되어졌을 때, 그 침팬지들이 바로 작은 숫자들을 가리킬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빈칸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such tasks are mastered’의 상황일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그럼 ‘상징적 개념으로 보상이 교체되어진다면’ 정도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G-S구조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영어에도 이러한 ‘구조적’ 풀이가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정답은 ② when an alternative symbol system is employed입니다.

cf) 한편 가장 많은 학생들을 낚았던 대박 낚시 선지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when material rewards alternate with symbolic ones

symbolic .. 도 너무 매력적이고, alternate ? 웬지 alternative가 생각나서, 아! 물질적 보상을 상징적인걸로 대체(대안이니까) 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alternate with은 ~을 대체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A와 B를 번갈아 나타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저 선택지를 해석하면 물질적 보상과 상징적인 보상을 번갈아 제시할 때가 되는거죠. 의미를 오해할 법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 선택지를 찍고 틀렸습니다. 단어공부! 해듭시다ㅎㅎ

## PARTB

## 문장삽입

## 문장삽입 CODE(2)-방향성

문장삽입의 또 다른 코드로는 최근 방향성이라는 코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라 함은, 앞전까지는 글의 소재에 대해 '+'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다가, 어떤 경계 아래로 방향성이 '-' (아니면 적어도 세모) 로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변화에 대해 안내를 해주는 문장이 바로 주어진 문장인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이때까지의 문장삽입 문제에서 However, But 등이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방향성의 CODE인 것이냐? 라고 물으시다면 그렇다라고 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적고, 되게 방향성이라는 코드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 달라졌음을 Catch할 수 있는 문장이 이해가 어렵고, 중의적 or Natural 하게 읽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결국 문제를 풀어보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 | 2016학년도 수능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Even so, it is not the money per se that is valuable, but the fact that it can potentially yield more positive experiences.

Money – beyond the bare minimum necessary for food and shelter – is nothing more than a means to an end. Yet so often we confuse means with ends, and sacrifice happiness (end) for money (means). It is easy to do this when material wealth is elevated to the position of the ultimate end, as it so often is in our society. ( ① ) This is not to say that the accumulation and production of material wealth is in itself wrong. ( ② ) Material prosperity can help individuals, as well as society, attain higher levels of happiness. ( ③ ) Financial security can liberate us from work we do not find meaningful and from having to worry about the next paycheck. ( ④ ) Moreover, the desire to make money can challenge and inspire us. ( ⑤ ) Material wealth in and of itself does not necessarily generate meaning or lead to emotional wealth..

\* acoustic: 음향의

\*\* diagonally: 대각선으로

## SOLUTION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돈(money) 라는 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다가 5번 문장 뒤에 ‘돈 그자체가 감정적 부유함을 불러오지는 않는다’라는 살짝의 방향성의 변경의 뉘앙스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어야지만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글 자체가 소재에 대해서 왔다갔다 (사실 방향성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CODE의 비밀입니다.) 계속 글의 맥락을 왔다갔다 하여 헷갈리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맥락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는지를 Test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았으면 좋을 것은, 이 당시에 주어진 문장속에 ‘Even so’가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임(그렇기는 하지만 이라는 의미입니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 당시 시험을 치는 친구들은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만으로는 사실 ‘아, 방향성이 달라지는 부분을 찾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인지한 채로 문제를 풀며 지문을 읽는 것이 불가능 했고, 그래서 문제풀이의 어려움이 좀 더 증가되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Even so를 모른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하지 못했다는 것은 CODE가 숙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의 변명일 뿐입니다. 결국 글 내부에서 ‘Money’ (돈)이라는 소재에 대한 방향성에서의 단절이 있었고, 그 단절을 매꿔주는 것이 주어진 문장이라는 것을 Catch하면 사실 정답이 될 번호는 5번 하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문제풀이를 꼼꼼히 읽어보시며 ‘방향성’이라는 ‘CODE’를 잘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 Comprehension

Even so, it is not the money per se that is valuable, but the fact that it can potentially yield more positive experiences.

– 주어진 문장에서 ‘Even so’라는 것을 안다면, 이 문장을 경계로 앞뒤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지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던 친구들도 많이 있을테니, 그냥 그것은 어떤 접속사겠거니 정도의 취급만 하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는 ‘돈 그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많은 긍정적이란 경험들을 많이 생산한다는 사실이 가치 있는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it is ~ that 강조구문, 그리고 not A but B 정도의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Catch 못하셨으면 구문 공부 꼭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Money – beyond the bare minimum necessary for food and shelter – is nothing more than a means to an end.

– 돈은 (단순히 음식과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 단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이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그냥 수단정도로 보는 것 같네요.

Yet so often we confuse means with ends, and sacrifice happiness (end) for money (means). It is easy to do this when material wealth is elevated to the position of the ultimate end, as it so often is in our society.

– 하지만, 우리는 그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목적에 해당하는 행복을 수단인 돈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그러듯, 물질적 부유함이 ‘궁극적 목적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네요. 필자는 아직 ‘물질적 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그것이 ‘목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거지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긴다기보다는요.)

(①) This is not to say that the accumulation and production of material wealth is in itself wrong.

– ‘이건’ 물질적 부의 축적이나 생산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문장이 부정하는 것은 ‘부 자체에 대한 부정적 방향성인니까’ This는 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앞문장에 대해서 ‘부를 목적 그자체로 여기는 것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This로 받는 것은 매우 적절한 듯 합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단절은 느껴지지 않지만, 방향성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네요!

( ② ) Material prosperity can help individuals, as well as society, attain higher levels of happiness.

- 방향성이 달라지고 난 다음, 물질적인 부가 가져다주는 장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함은 개인과 사회를 도와주고,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This is not to say~ 아래의 문장에서 방향성이 달라졌으니 2번 뒤의 문장 역시 앞문장과의 단절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2번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 ③ ) Financial security can liberate us from work we do not find meaningful and from having to worry about the next paycheck.

- 계속해서 물질적 부가 가져다 주는 장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질적 안전함은 우리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다음달 임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를 없도록 해준다고 말해주고 있네요. **이것 또한 물질적 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단절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 ④ ) Moreover, the desire to make money can challenge and inspire us.

- 이 문장 또한 물질적 부의 장점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욕구는 우리를 도전하게 만들고, 고무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물질적 부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기 때문에 단절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정도면 거의 돈에 대해서 돈벼어 천가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 ⑤ ) Material wealth in and of itself does not necessarily generate meaning or lead to emotional wealth.

- 갑자기, 물질적 부 그자체가 의미를 발생시키거나, 감정적 부유함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서술하다가, 부정적 방향으로 서술을 전환했는데, 그것을 연결해주는 문장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방향성의 전환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물질적 부 자체가 의미를 발생시키지 않고, 물질적 부 그자체가 감정적 부유함으로 이어지지않는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물질적 부에 대한 (소재에 대한) 서술의 방향성이 부정적인 것으로 돌아섰구나라고 Catch 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럼 그 지표는 어땠을까요?

Even so, it is not the money per se that is valuable, but the fact that it can potentially yield more positive experiences.

- 바로 주어진 문장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Even so'로써 역접을 나타내고, 앞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부의 부유함 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부 그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긍정적인 경험을 생산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며, 수단인 돈을 목적으로 착각하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5번 문장은 결국 그러한 입장에 대한 상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 PARTB

## 문장삽입

## 문장삽입 CODE(3) - 내용상 대응

내용상 대응의 CODE는 문장삽입의 가장 전통적인 코드입니다. 사실 14학년도 수능에서 대명사가 문제가 된 경우 이전까지는 거의 다 내용상 대응, 즉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봤을 때, 특정 번호 문장 뒤에 오는 것이 가장 내용상 대응이 잘 됨으로 정답을 집어 넣는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즉 앞선 CODE들이 '단절'에 focus를 맞추었더라면, 이 CODE는 그러한 단절 뿐만 아니라, 내용상 가장 자연스러운 맥락이 어디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는데 focus가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 출제 코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익숙하고 또 잘해내는 경우도 많지만, 간혹 글의 독해가 어려운 경우(단어, 구문 등의 이유로 인해)나, 내용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특히 재진술의 형식으로 문제가 형성되어있는 경우)에는 오답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며 내용상 대응이라는 코드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 | 2020학년도 사관학교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Another, unexpected, consequence is the ability of bacteria to overcome the mechanisms that give antibiotics their efficacy, rendering them useless.

Initially seen as miracle drugs, antibiotics, once they became widely available, were used not only for bacterial infections, but for everything from the common cold to headaches. ( ① ) Indeed antibiotics were a godsend, drastically improving medicine and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chieved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 ② ) Like many technological fixes, along with the positive benefits of antibiotics came negative side effects. ( ③ ) Antibiotics can kill the many beneficial bacteria in the human body, for instance those that promote digestion, along with invasive bacteria. ( ④ ) Antibiotic resistance, first a curiosity seen in the laboratory, became common among populations of bacteria exposed to antibiotics. ( ⑤ ) In a matter of yea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penicillin, penicillin-destroying staphylococci appeared in hospitals where much of the early use of penicillin had taken place.

\* staphylococci: 포도상구균



## SOLUTION

이 문제는 주어진 문장에서 Another consequence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아, 내용이 나오다가 주어진 문장을 경계로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걸 기억해둬서,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정확히 대응시켜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장 속에, the ability of bacteria to overcome the mechanisms that give antibiotics their efficacy, rendering them useless라는 말과 정답이 되는 4번 선택지 Antibiotic resistance 가 같은 말로 재진술됨으로써 연결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Comprehension

Another, unexpected, consequence is the ability of bacteria to overcome the mechanisms that give antibiotics their efficacy, rendering them useless.

- 주어진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기대하지 않은 또 다른 결과는 박테리아가 항생제가 효능을 부여하는 체계를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항생제들(= them = antibiotics)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읽어내고 난 다음 밑에 문장들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Initially seen as miracle drugs, antibiotics, once they became widely available, were used not only for bacterial infections, but for everything from the common cold to headaches.

- 처음에는 ‘기적의 약’이라고 보였던 항생제는 단순히 박테리아의 감염에 있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단순 감기부터 두통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① ) Indeed antibiotics were a godsend, drastically improving medicine and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chieved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 게다가, 항생제라는 것이 하늘님이 주신 것이었고 (갑작스럽게 발견하게 되었다 그정도의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제약들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예상수명의 증가에 있어서 엄청나게 공헌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② ) Like many technological fixes, along with the positive benefits of antibiotics came negative side effects.

- 많은 기술적 해결책들과 마찬가지로, 항생제의 긍정적인 이득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도치되어 있는 구문인데,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문장에는 어디에도 ‘However, but,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등’ 역접과 대조의 접속사가 없지만,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장 자체만으로 항생제의 긍정적인 이야기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로 바뀌는 역접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접속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 ③ ) Antibiotics can kill the many beneficial bacteria in the human body, for instance those that promote digestion, along with invasive bacteria.

-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항생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야만 합니다. 읽어보자면, 항생제가 인간의 몸에 있는 많은 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소화를 촉진시키는 박테리아와 같은 것들처럼 말입니다. (암세포 같은) 침입적인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말이죠. 이걸 분명 부작용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 ④ ) Antibiotic resistance, first a curiosity seen in the laboratory, became common among populations of bacteria exposed to antibiotics.

- 항생제에 대한 저항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저항 반응은 분명 앞에 이야기했었던 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는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지만, 또 한편으론 부작용에 대한 것인 것 맞죠? 그러면 이걸 'Another consequence'로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4번에 대응 시켜도 매우 잘 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시키고 나면, Antibiotic resistance (항생제에 대한 저항반응)에 대해서 주어진 문장 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the ability of bacteria to overcome the mechanisms that give antibiotics their efficacy, rendering them useless. = Antibioticresistance

- 이렇게 재진술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박테리아가 항생제가 먹히던 메커니즘을 넘어서고, 극복해서 굴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저항반응이 생기게 되는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이 내용에 대해서 재 진술하고 있는 주어진 문장이 4번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겁니다. 아니면 갑자기, 이로운 박테리아까지 죽게된다는 내용에서 저항반응으로 왜 넘어가지? 어 소재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응시켜봐도 똑같은 루틴대로 풀 수 있으니 어떻게 풀든 정답을 맞추었다면 글을 잘 읽고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